숭대극회 제27회 신입생 환영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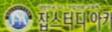
작 : W.세익스피어 연출 : 이원진 기획 : 박한경

일시: 2008년 6월 4일(수), 5일(목), 7일(토) 오후 7시 20분

장소 : 학생회관 뒤 노천극장

주관 : 숭실대학교 숭대극회

후원: 1 서일어학원 🕟 잡스터디아카테미



매월 1일 개강

"내일을 준비하는 확실한 선택, 믿을 수 있는 어학전문 교육기관"

서일어학원 갓낫캣퍼스



나의 성공 열쇠는 영어 1등'서일어학원'을 만난 것 입니다.

TOEIC / TEPS / GMAT / SPEAKING

- 1. 최강의 강사젠 최상의 시설! 최고의 강의!
- 2. 매주 토요일 오픈강좌 개설!
- 3. 매월 시험전일 적중모의고사 및 안심특강!
- 4. 스터디 지원 및 소수정예 집중 지도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27회 신입생 환영공연 [한 여름 밤의 꿈]에 오신 것을

올해도 새해가 밝고 수많은 신입생이 연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변해가는 세대들이 연극이라는 변하지 않는 멋진 놈을 알아가기 위해 모여 '멋진 놈'이 되어 어느덧 무대를 오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달여간 연습으로 구슬땀을 흘려가며 연습해온 그들이 열매를 맺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열매가 공연을 준비한 이들에게 극회장으로서 연극을 좋아하는 '멋진 놈'으로 쓴 열매가 아니라 마음 속 깊이 남는 그런 '무엇'이였으며 좋겠습니다.

극회장 이 원 진(전기03)

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관객여러분도 저희 [숭대극회]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연극이라는 '멋진 놈'을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네 연극이 마음에 안 드시거든 이렇게만 생각해 주십시오. 잠시 졸고 계신 동안 꿈을 꾸신거라구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실 테니까요.

이 빈약하고 허황된 꿈같은 연극을 너무 꾸짖진 마십시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면 차츰 고쳐나가겠습니다.

모두를 대표해서 이 정직한 극회장이 약속드리오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절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럼 안녕히들 주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드신다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6월 4일 - 극회장 올림 -

대학이라는 곳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는 변변한 극장하나 없는 숭실 대학 동문이란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공연 장소 확보가 어려워 야외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행여 안전사고나 나지 않을까 염려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물가에 어린아이를 내 놓은 부모의 마음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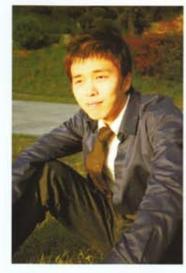
숭실대학 관계자분들께 애정어린 관심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숭대극회 제27회 신입생환영공연을 위해 고생한 후배들 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무사히 공연을 마치기를 기원합니다.

숭실대학교 숭대극회 동문회 일동

연출의 변



연출 이 원 진(전기03)

연출만 해야겠는데 배우도 하고 극회장도 하고 무대도 봐야겠고 뭐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정말 우여 곡절 많은 이번 작품이 드디어 무대에 올라간다.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선후배 동기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 옆자릴 지켜준 기획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연극을 바칩니다.....! 무대 위에서 뵙겠습니다.....

기획의 변



누구도, 나조차 예상하지 못했다. 내가 설마 기획이 될 줄은 말이다. 캐스트에서 기획2에서 정식 기획이 되기까지 우여 곡절이 참 많았다.

궁핍함으로 맛있는 것 한 번도 사주지 못하고 주말엔 기획일 한다고 하고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줬다. 특히 날 지탱시켜준 연출님과 믿고 따라 와준 13명의 캐스트들이 없었다면 기획은 없었을 것이다.

하고픈 말은 너무 많다. 푸념하고픈 속상한 일도 너무 많다. 혼자 방에 처박혀 울었던 일도 너무 많다.

기획 박 한 경(화학06) 이런저런 이야길 하루 종일 써도 끝이 없을 거 같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모든 것을 잊고 사건사고가 많았던 이번 공연이 드디어 올라간다는 기쁨이 주체할 수 없다.

잊지 못할 것이다. '한 여름 밖의 꿈'

작가소개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 시인 겸 극작가로서, 극작가로서의 세익스피어의 활동기는 1590~1613년까지의 대략 24년간 으로 볼 수 있다.

이 기간에 그는 모두 37편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작품을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초기에는 습작적 경향이 보였으며, 영국사기를 중심으로 한 역사극에 집중하던 시기, 그것과 중복되지만 낭만희극을 쓰던 시기, 그리고 일부의 대표작들이 발표된 비극의 시기, 만년에 가서는 화해의 경지를 보여주는 이른바 로맨스극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세익스피어 (1564~1616)

그는 평생 연극인으로서 충실하게 보냈으며, 자신이 속해 있던 극단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했다.

주요 작품에는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 〈햄릿〉, 〈맥베스〉 등이 있다.

작품소개

1594~1595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1600년 간행되었다.

아테네의 디시어스와 허폴리타의 결혼식이 임박했을 때, 마을의 처녀 허미어는 부친이 정해준 디미트리어스가 아닌 사랑하는 라이샌더와 함께 숲에 몸을 숨긴다.

디미트리어스는 그녀의 뒤를 따라 숲으로 들어가고, 디미트리어스를 짝사랑하는 헬레나도 숲으로 들어간다.

숲에는 많은 요정들이 살고 있으며 이 숲을 지배하는 요정의 왕 오베론과 왕비 타이테이니어가 인간처럼 부부싸움을 한다.

때마침 공작의 결혼식을 축하하려는 마을 사람들이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랑의 비약을 가진 요정 퍼크가 뛰어들어 갖가지 우스운 일들이 전개된다

결국 디미트리어스와 헬레나. 라이샌더와 허미어가. 디시어스 공작과 히폴리타와 함께 결혼식을 올리고 마을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비극이 상연되어 모든 일이 즐겁게 끝난다.

아테네의 귀족과 서민들, 요정이라는 세 세계가 숲에서 한데 모여 서로 친근한 관계를 맺으면서, 낭만적이고 몽환적인 세계가 전개된다.



퍼 크 박한경(화학06)

그렇다, 내가 바로 그 즐거운 밤의 방랑자다. 나를 언제나 믿어준 나의 가족 사랑해요 ♥ 그리고 우리 이쁜 애기 ^3^



라이샌더 정다운(언흥07) 나는 배웁니다.



겨자씨 이용혁(불문06) 태풍의 눈속에서 셰익스피어의 서를 읊다.

춤을 취요~ 겨자씨요정♪



김명희(국통07) 나는 지금 변태를 꿈꾼다.



부나비 이보라(정외06) 반갑습니다^^ 부나비요정이예요!

당신의 꿈에 날아가

춤을 춰드릴게요~♡



이보라(전기07) 네 번째, 마지막, 조명이 켜지고 무대 위에 내가 있다. 어흥



김종현(전기08) 나는 깨달았다. 포기하는 것만큼 보다 더 큰 어떤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보 텀



디시어스 이준희(전기08)

긍정의 힘을 길러준 우리 숭대극회... 고맙습니다!!!



킨 스 김상현(전기08) 국회에서 자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국회인이 아니다.



플루트 이동오(정통08) 연기는 열정만 갖고는

연기는 열정만 갖고는 안 된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해야만 완성되는 게 연극이다



디미트리어스 서명득(전기08) God, I found the key



이폴리타 정승은(글로벌08)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나에게 또 다른 날개를 달아준 연극!



오 베론 김세한(문창08) 극회에 바쳤던 휴일들, 이제 좀 자자.



헬레나 김윤지(경영08) 사람냄새가 난다, 맛있겠다.



타이테이니어 김연진(글로벌08)

lose myself



스타블링 이원진(전기03)

나를 따르라!!!



Main staff 음 향 윤대현(전기03)



Main staff 조 명 한재진(성악04)



사진작가 신영준(언론03)



무대감독 김성은(국문03)



무대장치 김구식(전기03)



무대미술 박지승(평교03)



소 품 김재우(영문03)



안 무 이고운(법학04)



분 장 이경윤(화공05)



의 상 정한길(컴공04)



진 행1 민지은(법학06)



진 행2 박인수(국통07)



스 폰1 정현승(정통06)



스 폰2 정지예(평교06)

08. 04. 24 오는는 시간이 먹는 없다. 박 1일 %다. 보내가 취다. 연극이 어떻다. 연혼되는 대면 드신다.

08. 05. 02 전국, 시간 사기는 과본... 신입 1학기는 갖고갖고 뛰고 있어... 전투이기 난 없이나에는 한 됐대... 산 및이 산도 이년 건너에서 위에서에 비친 친구... 기는이 앱앱하다...쿠..

08. 05. 06 구박도 휴인도 BYE BYE 이젠 진재 원인... 빨대대!!보고난이...

08. 05. 07 인독은 네가 된다. 구시도 없는데.. 인독대가 지치고 연습하기 있다. 애독이 내린 시합이가는데..

08. 05. 17 토하인 누구 이네... 내내 고대서 하나대우다(북어버)는 덕자다. 바이다 먹으나 맛있다다. 나는 이것도 베고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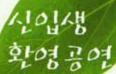
एन प्रमा भागाल द्रामा भागान भागान कार्य कार्य कार्य कार्य का भागान द्रामा भागान कार्य कार्य कार्य का











신입생 환영공연 연보

1	1975년 3/10.11.12	악마와 톰-Aning 작		김홍수
2	1976년 10/29.30.31	보석과 연인-이강백 작		김독님
3	1977년 3/16.17.18	출발-윤대성 작	전경호	안홍순
4	1981년 3/30.31	셋-이강백 작	한철	정재호
5	1982년 3/24.25	ARIA DA CAPO-E.St.V.Millay 작	이영환	오세현
6	1983년 4/16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김용락 작	최시영	이용실
7	1984년 3/8.9	블랙 코미디-피터 쉐퍼 작	전희식	홍여석
8	1985년 7/20	개인의 소공간-N. Horald 작	차세훈	김인토
9	1986년 3/17.18.19	ARIA DA CAPO-E.St.V.Millay 작	이영민	하승민
10	1987년 3/12.13.14	인형의 집-헨리 입센 작	이길영	김정 E 위성신
11	1987년 3/12.13.14	더러운 손-J.P샤르트르 작	백윤현	박경근
12	1988년 3/24.25.26	불가불가-이현화 작	천승범	황금성
13	1989년 3/23.24.25	흑인수녀를 위한 진혼곡-A. Camus 작	홍덕태	박경근
14	1990년 3/8.9.10	우물증 환자-Botoh Strau B 작	이영민 안상준	박혜숙 백로리
15	1991년 3/7.8.9	노크 노크-줄스 파이퍼 작	정현용	이범증
16	1992년 5/28.29.30	꿈 먹고 물 마시고-이근삼 작	김상겸	양현경
17	1993년 3/11.12.13	메두사-George Kaiser 작	소장호	박원성
18	1994년 3/10.11.12	어린왕자-쌩떽쥐베리 작	이명성	홍석홍
19	1995년 3/9.10.11	봄날-이강백 작	양명호	정석된
20	1996년 5/30.31/6.1	울어라 뱃고동아~성준기 작	정재훈	김형근
21	1997년 5/29.30.31	로물루스대제-F.뒤렌마트 작	박정국	정석용
22	1998년 6/5.6.7	결혼/아폴로-이강백 작	강길호 안병진	류민족
23	1999년 6/3.4.5	자매-라투아니아	홍신택	권내리
24	2000년 11/16.17.18	도덕적 도둑-Dario Fo 작	김명진	강길3
25	2002년 5/30.31/6/1	노부인의 방문-F.뒤렌마트 작	강혜정	서정의
26	2003년 5/29.30.31	택시드리벌-장진 작	김종백	한주영

숭대극회 제27회 신입생 환영 공연을 축하드립니다.

협찬





정기공연 연보

회	공연일자	작 품 명	기획	연 출
	1921년 6/13	연홍소인극 "절세영웅나폴레옹의말로", "대비극 노예의 탑"		
	1923년 7/7,21	전원극 "우리의행진","기계인간" "동백꽃", "십년후"-앱엣청년회주관		
	1925년 7/28,29	"소인연극"-고학생후원회 주관		
1	1965년 11/	"폐궁으로 돌아오다" -황영석 作	이반	전진호
2	1968년 10/28	"Our Town"-Thornton Wilder作		이태주
3	1969년 10/10	"의자들" - E, 이오네스꼬作		고봉인
4	1969년 10/28,29	"The Miracle Worker" -Williarm Gibson #F		고봉인
5	1970년 5/15	"聖者의 샘물"-John Millington Synge 作		한영제
6	1970년 10/28,29	"승부의 終末"-Samuel Barclay Beckett 作		김양기
	1971년	"The Rising of the Moon"-Lady Gregory 作 "건널목 삽화"-윤조병 作		정종화 주정서
7	5/26,27,28,31 6/1,2	"담배해독에 대하여" - 안론체흡作 "황금단지" - 푸라우터스 作 "고도를 기다리며" - 샤무엘 베케트 作		한영재 유근배 차현재
8	1971년 11/4.5.11	"저격병의 그림자" - 산오케이시 作		차현재
9	1972년 5/25,26,27	"생일파티"-H. 핀터作		한영재
10	1973년 5/21.22.23	"미시시피씨의 결혼"-F. 뒤렌마트 作		고봉인
11	1973년 10/25,26,27	"방"-H. 핀터 作, "기도"-F. 아라발作	김독남	차현재
12	1974년 5/25,28,30	"정의의 사람들"-A. 까뮈 作		정종화
13	1975년 6/9,10,12,13	"싸움터의 산책", "도스토에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안홍순
14	1975년 10/29,30,31	"비더만과 방화범"-Max Frish 作	김기열	안홍순
15		"인터뷰" ~ 장 클로드 반 이탤리 作	김기남	김독남
16	1976년 10/25,26,27,28	"뱀"-장 클로드 반 이탤리 作		김영덕
17	1977년 6/15,16,17,18	"EQUUS"-피터쉐퍼作	백정식	김영덕
18	1977년 10/10.11.12.13	"EQUUS"-피터쉐퍼作	방영철	김영덕
19	1978년 6/5,6	"Counter Point"-Olov Hartman #	방영철	김영철
20	1978년 10/24	"EQUUS"-피터쉐퍼作(대학연극제참가)	민승기	김영덕
21	1979년 6/18,19	"한강2979"-김영덕 作	정재호	이병국
22	1979년 9/29,10/2	"초분"-오태석 作	이정일	황정순
23	1980년 11/5,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 브라이언 클라크 作	엄세범	박양권
24	1981년 6/12.13	"노부인의 방문"-F. 뒤렌마트 作	이종규	황정순
25	1981년 11/12,13,14	"달맞이 꽃"-김병종作	전석근	황정순
26	1982년 5/12,13	"까리큘라"-A. 까뮈 作	음태웅	지숙
27	1982년 10/7.8	"쉐도우 박스"-M. 크리스토퍼 作	전희식	황정순
28	1983년 6/20,21	"미시시피씨의 결혼"-F. 뒤렌마트 作	전희식	김영덕
29	1983년 10/7,8	*트레버*-JohnBowen作	이원우	오정열
30	1984년 5/24,25,26	"도가니(The Crucible)"-A.Miller作	이종규 엄세범	오세환
31	1984년 10/11,12,13	"변전소"-John Stoltenberg作	차세훈	이용섭
32	1985년 5/9,10,11	"빈민굴"-막심 고르끼 作	김상헌	이용섭
33	1985년 11/21,22,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조반니 과레스키 作	하승민	송기범
34	1986년 6/4,5,6	"EQUUS"-피터 쉐퍼作	허성무	하승민
35	1986년 9/11,12,13	"코뿔소"-E, 이오네스코作	안상준	송기범
36	1987년 6/3,4,5	"한 여름밤의 꿈"-W. 세익스피어 作	권형진 이준석	오정열

희	공연일자	작 품 명	기획	연 출
37	1987년 9/10,11,12	"오해"-A. 까뮈作	오정열	박경근
38	1988년 6/2,3,4	"세 번은 짧게 세 번은 길게" - 이어령作	이충일	오정열
39	1988년 10/6,7,8	"안내놔? 못내놔?"-다리오 포作	권태수	송근호
40	1989년 5/25,26,27	"농녀"-윤조병作	천승범	안선후
41	1989년 10/10,17,18	"대성당의 살인"-T.S. 엘리엇作	오정열	이반
42	1990년 5/24,25,26	"안티고네"-장 아누이 作	권태수	이준석
43	1990년 8/30,31,9/1	"한씨연대기-황석영作	천승범	이영민
44	1991년 5/	"생일파티"-H. 핀터 作	남재우	권승혜
45	1991년 9/5,6,7	"날개"-이상作	양현준	권형진
46	1992년 3/19,20,21	"우린 나발을 붙었다"-김상렬 作	임경화 정현용	홍은영
47	1992년 9/17,18,19	"금관의 예수"~김지하作	홍석환	송근호
48	1993년 5/20,21,22	"세일즈맨의 죽음"-아서 밀러 作	황명식	박원상
49	1993년 10/21,22,23	"택시 택시"-김상수 作	소장호 이명성	박원심
50	1994년 5/26,27,28	"굿 닥터"-닐 사이면 作	정석용	소장호
51	1994년 9/29,30,10/1	"안티코네"-소포클레스作	소장호	박원심
52	1995년 5/25,26,27	"상자속의 여자"-김윤미 作	현승옥	류성횐
53	1995년 11/26,27,28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JM. 바스콘셀로스 作	김은성	남재우
54	1996년 3/7,8,9	"자살"-김현묵作	한석윤	손미리
55	1996년 9/5,6,7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테네시 윌리엄TM 作	조태희	이층호
56	1997년 3/13,14,15	"우리 읍내" - 손론 와일더 作	신하영	서수김
57	1997년 10/8,9,16,17	"대성당의 살인"-T.S. 엘리엇 作_개교 100주년 동문합동공연	엄세범	정종호
58	1998년 3/18,19,20	"살인 놀이"-E.이오네스코 作	조태희	권내리 이정미
59	1998년 11/26,27,28	"물고기의 축제"-유미리作	윤장한	조태호
60	1999년 3/11,12,13	"사람은 저마다 모두 색맹입니다" - 이정원 作	이윤재	이경호
61	1999년 9/2,3,4	"세상 낚기"-이정원作		이정원
62	2000년 5/4,5,6	"아름다운 시인"-장진 作	이윤재	이경호
63	2000년 8/31,9/1,2	"소나기"-황순원 作	김귀하	박정극
64	2001년 3/29,30,31	"인간에 대한 예의" - 서정훈作	이욱재	서정훈
65	2001년 9/6,7,8	"바라보다 닮아가다"-김희진 作	서정우	김희진
66	2002년 3/13,14,15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 作	김영걸	김명진
67	2003년 3/6,7,8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이 보인다"-김태수 作	이미나	윤장한
68	2003년 9/4,5,6	"고도를 기다리다 보면" - 사무엘 베케트 作	김성은	최연경
69	2004년 6/3,4,5	"평화씨"-아리스토 파네스 作	김성은	강혜정
70	2005년 3/2,3,4	"마술가게"-이상범作	김성은	이욱자
71	2005년 10/6,7,8	"히바쿠샤"-홍가이 作	정한길	한재진
72	2006년 6/1,2,3	"청춘예찬" – 박근형作	이고운	이욱자
73	2006년 9/21,22,23	"사랑에 관한 일곱가지 소묘"-위성신 作	김병현	김승타
74	2007년 5/31,6/1,2	"굿닥터"-닐 사이먼 作	신영준	한재진
75	2007년 9/6,7,8	"천년제국 1623년"-차근호作 정기 동문합동공연 및 개교 110주년 기념	숭대극희 동문회	박경근

갈릭치킨

호프광장

수입소품점 래미안베이커리 안경(LooknLook) 베토벤 블루힐

꽃돼지 트릭 HOF 대림스낵 네잎클로버 Sktelecom 바비네일 무영(부동산) 주립대 그린호프 불닭 고기마을찌개나라 양자강 주전부리 김가네 쌍투골/어글리 풍경

The precious

황궁짜장 동아마트 운두렁 감자 밥먹으러 시골집 손칼국수

숭실먹거리 이모네 파라다이스 OK김밥 맛나화이팅 치킨뱅이 이자카야 정통닭갈비 양심이모네 가야성,가야금 SBS노래방 꼬레뱅 마포창숯불갈비 인터뷰 이모네집 엄마손 흥부네 철판이야기 노아노아 입보스코 숯불갈비 노점(탕수육)



대한민국 No.1 공기업/국정원/대기업/방송언론사 자기개발과정 아카데미 - 잡스터디아카데미

"잡스터디아카데미에서 합격을 Job아라!"

공기업/대기업/국정원/방송언론사/자기개발과정



국내최고 취업교육 전문 아카데미 www.jsa.ac



